

'남북교류, 새로운 출발'

전북도, 사업 발굴·추진방안 논의... 토지개발 서해안 철도대비 새만금항 인입철도 조기 건설 등

전북도는 항구적 평화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맞게 된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 선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연석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전북거래하나, 농촌진흥청, 한국예총전북연합회, 도체육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시군 남북교류 소관 부서장, 전북도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남북교류 재개 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사업 발

굴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2016년에 이미 확정된 농업 축산지원사업,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 산림복원 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의 토지개발사업, 종자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 축사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전북도의 농생명산업과 연계한 농축산업 기술전파 사업을 추진하고, 서해안 철도 대비 새만금항 인입철도 조기 건설, 서해안 바닷길 직항로 개설사업으로 새만금 중심 물류기지 선점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체육분야 인적교류 사업으

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북한선수단 및 공연단 초청, 세계소리축제 및 세계서예비엔날레에 북한 문화예술단체 초청, 역사유적 공동답사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할 교류협력사업을 확정 후 2018년 추경 및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 다.

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전북도는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부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련기관 및 대북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장단기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전북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농촌생활에 적합한 전북으로 오세요'

도 귀농귀촌박람회 성료... 도민에게 정책 소개·상담 진행 지역 생산 로컬푸드·마을기업 생산 가공식품들도 판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자치단체 최초의 '제4회 전북 귀농귀촌 박람회'가 11일,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종합전시컨벤션)에서 개막식을 갖고 13일까지 열렸다. <관련기사 7·10면>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가 좋다! 함께하는 귀농귀촌'이라는 주제로 전북도내 지자체, 교육기관, 농촌체험휴양마을, 유관기관, 업체 등 80여 개 기관이 참가해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전북귀농귀촌박람회"는 "지자체 홍보·상담관", "귀농귀촌 교육관", "농촌체험휴양마을관", "정비지존", "6차산업·로컬푸드관", "유관·교육기관 협력관", "전라북도 종합홍보관" 등 7가지 테마

로 구성 운영됐다. 지자체 홍보·상담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귀농귀촌 교육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관에서는 임실 치즈마을, 순창 고추장마을 등이 참여 하며 지역에서 생산하는 마을 제품을 홍보하고 체험했다.

6차산업·로컬푸드관에서는 도내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 및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6차 가공식품들을 판매했다.

이번 '전북귀농귀촌박람회'는 전북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로컬푸드, 6차 산업, 교육기관을 알리는 등 차별

화했다. 전북도 내의 우수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알리고, 전북에서 시작되었던 로컬푸드·6차산업(신선·가공농산물)을 전시·판매하고, 귀농귀촌 교육기관 등을 홍보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주시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7월에서 8월은 교육기관의 방학시즌 뿐만 아니라 휴가시즌을 활용하여 귀농귀촌교육이 활성화되는 시기다"며 "많은 귀농귀촌희망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휴가시즌과 방학시즌에 앞서 전북의 모든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참여하여 진행되는 박람회이지만 큰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정시 출퇴근 day' 확대

도, 매월 2회 본격 시행 직원들의 큰 호응 얻어

전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및 워라벨(일·삶 양립)을 통한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는 '정시 출퇴근 day'를 매월 2회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1일 본격 시행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시 출퇴근 day는 일에 치중되어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벗어나 한 달에 하루만큼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의 노사합의를 통해 2016년 2월 28일 전국최초로 시행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도청, 개인행복을 찾아가는 도청, 부담없이 출근하는 도청"구호 하에 공무원노사가 꾸준히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제도적으로 성공리에 정착했다.

도는 청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매주 수

요일 '가족의 날', 둘째주·마지막주 금요일 '정시 출퇴근 day',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민식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전북도와 전북노조는 청원들의 가족 있는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청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많이 향상 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사가 힘을 모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여가부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청소년이 직접 정부에 정책 제안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한다.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특별회의는 11~12일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올해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청소년 참여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총 430여명의 청소년들이 위원

으로 활동한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논의될 정책영역은 '참여'다. 위원들의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청소년 참여'는 시민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 등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선정된 정책의제를 두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발굴해 11월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2005년 이후 총 47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416개 정책과제가 수용(88.5%)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리센룽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 성공 기원"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11일 싱가포르 개최가 확정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관련기사 3면>

리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에 답글을 달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만남은 평화로 가는 길의 중대한 발걸음"이라며 "성공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기대감이 높은 김정은과 나의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며 "우리 둘 모두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외무부도 10일 성명을 내고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능성을 향상시키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외교적 중립성과 높은 공공 질서 수준, 다수의 고위급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갖추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한 개최지로 거론돼 왔다.

싱가포르 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는 샹그릴라 호텔, 마리나 베이 샌즈, 그리고 센토사 섬 등이 언급되고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